

§ 교회 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22년 표어 §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마 22:37-40)

十행 동지 십+

-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 2. 다시 교회로(Rebuild)
-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발행인 : 순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나는 선한 목자

(요 10:11-18)

이종윤 원로목사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의 주석서라고 할 만큼 고난의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부각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선한 목자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입니다. 이 말은 쉽게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표현을 일곱 번이나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6:35),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나는 양의 문이다"(10:7), "나는 선한 목자다"(10:14),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이다"(요 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이다"(14:6), "나는 참 포도나무다"(15:1,5).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키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출 3:14상)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를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 선한 자, 그 목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라고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목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그 목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와 같은 모든 좋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처지에 따라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고 목자가 양을 알듯 우리의 모든 필요와 연약함을 아시고 채우십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쉼 때까지 평안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실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쉼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2) 선한 목자의 특징

① 신실합니다

선한 목자는 평화롭고 안전한 때만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이 다가와도 마지막까지 양을 위하여 돌보십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책임을 다합니다.

② 부지런합니다

선한 목자는 열심히 일하시므로 적당히 일하는 샅군 목자와는 다릅니다.

③ 오래 참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일에 있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잘못에 대해서 오래 참습니다.

④ 모범이 됩니다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라(벤전 5:3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양 무리의 본이 되십니다.

⑤ 희생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모든 천대와 멸시를 참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양들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⑥ 사랑이 풍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해매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2. 목숨을 버린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그의 죽으심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①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② 대리적인 죽음입니다. ③ 특수한 죽음입니다. ④ 사랑의 죽음입니다.

12절에서는 목자와 샅군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샅군은 샅을 받는 만큼만 일하는 희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아직은 양심이 있어서 샅군 노릇을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소위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까지도 샅군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14, 15절은 시편 139편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선한 목자와 양은 서로 알고 있습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필요를 아시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도 물론 주님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과학적인 지식이나 또는 이성적인 판단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지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아버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모든 양떼의 죽음을 대신하신 것이고 그의 다시 사심은 그의 양떼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희생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므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열심히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참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선한 목자장이 되십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발열 체크 진행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 교회는 금주부터 교회 출입 시 발열 체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교회가 사회의 모범이 되고 성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린 결정으로 교회 들어

오실 때 성도들은 모두 발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란다.

앞서 교회는 7월 맥추감사절 성찬식을 앞두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장로들과 교역자들 전원은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욱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권동영 김종훈 김재용 김요한 이상민 한지원 심중규 문영훈 이준우 정건 유성근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심준규 허성강 장하람 최윤학 이강현

백승규 중위 황수지 소위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김정균 소령

예배위원 모집

주일 1, 2, 3부 예배, 찬양예배 안내 위원
주일 1, 2, 3부 봉헌 위원을 모집한다.

* 문의 : 채교천 집사 (010-6444-2502)

식당이용 안내

- 배식 시작 : 오전 11시
- 배식 종료 : 오후 1시 10분
- 모든 식기 반납 : 오후 1시 25분

* 잔반을 남기지 마세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설거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과 남을 배려하는 서울교회 교인들이 됩시다.

교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니다!



2022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 중

오늘 유년부 진행 중
29일(금) 중·고등부, 아가페타운에서

2022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은혜 중에 진행 중이다

오늘 유년부가 교회에서 진행 중이며 29일(금)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아가페타운에서 수련회를 진행한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는 시기에 유·초등부는 의사인 교사들이 전원 신속 항원 검사, 음성 확인 후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남은 순서 모두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제	일시	장소	담당교역자
유년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기적의 세대!	7/23(토) - 24(주일)	교회	조동수 목사
중·고등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	7/29(금) - 31(주일)	아가페타운 교회	정기성 전도사 김예지 전도사
청년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8/12(금) - 13(토)	아가페타운	안용곤 목사

2022 하반기 장학생 모집

신청 기간	2022년 7월 17일 - 7월 31일		
신청 방법	구비서류 완비하여 서울교회 사무국에 제출(담당자: 정승균 집사)		
장학금 구분	일반 장학금	브리스길라 장학금	송암 장학금
추천대상	서울교회 등록된 지 1년 이상 된 대학생, 지체부자유자 및 생계지원을 요하는 대학생	신학대학교(대학원) 재학생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인 대학생
	학업성적이 우수하고(직전 학기 학점 평균 B학점 이상), 신앙생활 또는 봉사에 모범인 자		
구비서류	①교구 또는 봉사부서 추천서 ②재학(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 ④자기소개서 (또는 신앙간증문)	①교구 또는 봉사부서 추천서 ②재학(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	①교구 또는 봉사부서 추천서 ②재학(예정)증명서 ③성적증명서
선발기준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자 중에서 장학위원회 심사를 통해 장학금 수여 대상자 최종 선발 (서류 미비시 대상에서 제외).		
지급예정일	2022년 8월 28일(주일) 찬양예배 시 (선발된 장학생은 반드시 찬양예배에 참석하여야 함)		

2022 서울성경대학 수료자 명단

출애굽기 반

석상화 최형열 김찬진 채교천 송정윤 나현주 이향수 서은석

마태복음 반

허미옥 최형열 김찬진 채교천 김애리 김은숙 나현주 이향수 이인숙 서은석

7월 한 달 동안 순례자를 통해 2022 상반기 선교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온 성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교보고 - 인도

투철한 복음 정신에 우뚝 선 하나님의 종들을 잘 양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달익 목사님, 이종윤 원로목사님과 선교위원장님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범연 선교사는 인도에서 2곳의 신학교를 관리하며 강의하면서 인도 목회자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그러나 인도 성도들은 환난을 극복하고 그 믿음은 더 굳건해져 갑니다.

인도에서 부족한 종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서울교

회 담임 목사님과 선교부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귀한 후원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현재 인도의 낮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면서 무척이나 덥고, 코로나 전인 2년 전과 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도에서 코로나는 거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집단 면역이 수많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은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다지만 인도는 이제 안정기로 접어 들

었습니다. 세계 인도는 늘 다정하고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땅인 것 같습니다. 14억이라는 무척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인도에서 어찌해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접근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주님의 종들을 잘 양성하고 교회를 통한 전도사역을 해야 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조범연 · 김희정 선교사



1. 나갈랜드 신학교 현황

나갈랜드 신학교에는 현재 70-80여 명의

신학생들과 20여 명의 교수 직원들이 합숙하며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

월 2(수)-4일(금)에 체육대회를 했었고 수업하는 모습과 채플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2. 나갈랜드 신학교 담장 공사

FL 선교회와 다른 교회의 후원으로 신학교 담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간혹 짐승들이 신학교 내에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말썽을 피우기도 해서 담장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은혜 중에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 차티스가르 신학교 운영 중

중부 인도의 차티스가르 신학교에는 현재 40명의 신학생들이 교회 개척을 준비하며 열심으로 공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4. 교회 건축 완성

나가 크리스찬 선교하는 교회, 우림갓 침례 선교하는 교회, 겔 아쌌 선교하는 교회, 랭힌 크리스찬 리바이벌 선교하는 교회 기념교회

5. 결어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도처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며 분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모르기에 영적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분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우리 선교사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인도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투철한 복음 정신에 우뚝 선 하나님의 종들을 잘 양성해야 함을 고백합니다. 인도선교회를 통해 지

금까지 2곳의 신학교와 500여 곳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교의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임에도 선교사역은 멈출 수 없습니다

케냐를 위해 주님의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 주시는 서울교회와 손달의 목사님, 선교위원회와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케냐도 다시 한인들과 선교사들의 코로나 확진이 늘어가고 있어 많이 위험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역을 하며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조금은 위험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곳은 마스크 착용과 백신 보급률이 낮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현지인들은 관여치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변에서 사망자가 생겨도 무덤덤합니다. 맘껏 수업하며 찬양하며 대화하고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게 되기 위해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찬양선교를 시작하지 13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 교회와 학교를 빌려 옮겨 다니며 찬양 사역자 양성을 위하여 매진하던 중에 지금 시대에는 좋은 교육 시설과 환경이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건물이 절실히 필요하여 기도하던 가운데 몇 분이 뜻을 모아 5년 동안 기도하며 준비해 온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국가와 교회의 재정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선교사역은 멈출 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의지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와 같이 진행을 하였고 동역자 후원자들의 기도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 위해 기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선교센터 건축 사역

1.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나이로비 근교에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땅값은 많이 비싸고 3년을 찾아 헤매다가 현재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센터에서 30m 떨어진 곳에 330평을 구입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명의이전과 어렵게 건축 허가를 받아 드

어 '21년 12월 1일(수)부터 담장을 세우고 12월 27일(월)부터는 예배실과 식당, 사무실, 개인 연습실, 악기 관리실 등 교실 7칸 규모의 메인 건물이 들어서고 외부에는 화장실과 경비실, 창고, 주차장, 물탱크 등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8개월 정도 예상하는 건축 기간 동안 인부들의 안전과 부족한 건축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선교센터는 2년제 찬양신학교 60명 학생 교육 및 영재반 방과 후 교육(합창, 성악,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등)과 행정 본부 사무실로 사용되고 진정한 찬양 사역자를 세우는 수준 있는 음악 선교센터, 아마니 음악학교로 자리 잡기 위해 주님이 계획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둘째: 학교 사역

1. '21년 아마니 찬양신학교 3학기를 무사히 마치고 '22년 1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신입생을 16명만 오디션을 하여 선발하였고 2학년 9명과 스태프들이 오랜만에 같이 모여 개강예배를 드리고 시작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학생들이 일을 해야 하여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2. 4개 학교에서 진행하던 초등학교 방과 후 음악 수업과 합창단 수업이 다시 시작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3. 정신지체 및 특수 아동을 위한 스페셜 음악 수업이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셋째: 급식, 구제 사역(1,218명)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급식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잘 먹일 수 있도록, 하루 한 끼로 살아가는 굶고 있는 다른 많은 아이들에게도 점심 급식이 추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 마사이 지역 Eseki(에세키)초등학교 370명 점심 급식을 위해.

2. 북 마다레 슬럼지역 루아리카아카데미 150명 점심 급식을 위해.

3. 주자 지역 미리마이니초등학교 674명 점심 급식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4. 주변 학교와 교회,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5.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부드러운 생리대를 한국에서 후원 받아 생리대 32박스(1,280개)를 케냐 5개 학교 920여 명과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6. 전체 아마니 학교에 속해 있는 가정 중 아주 어려운 2가정을 선별하여 매달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넷째: 장학 사역

1. 가정 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6명), 대학생(9명)이 현재 아마니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2. 고등학교와 대학 진학을 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후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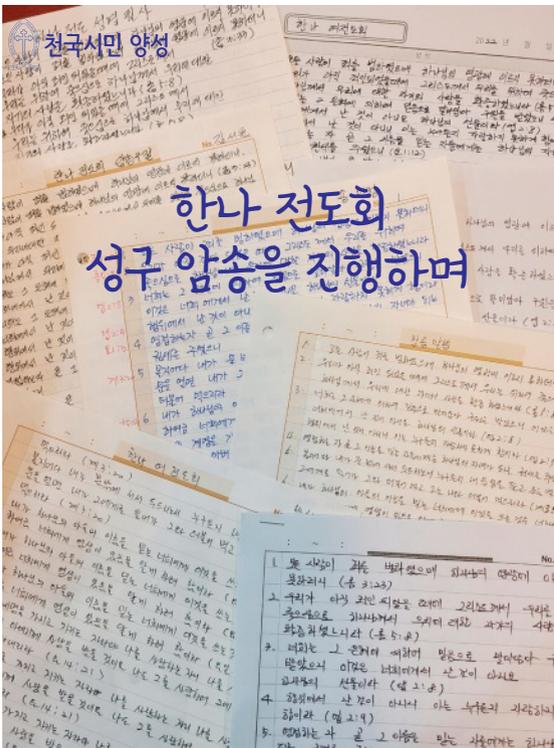
다섯째: 크리스마스 특별 간식

1. 지난 크리스마스 주간에는 1,200여 명 학교 아이들, 스페셜 학생들, 교사들, 학교 교사들,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크리스마스 특별 간식(쌀, 밀가루, 설탕, 사탕, 마가린, 비누, 우유, 빵, 소다, 쿠키, 생활용품 등 교사들은 다 이어리도)을 준비해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지! 감사하다 표현은 잘 못해도 얼굴에서 긴장된 모습을 보며 자주 주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케냐 김낙형 · 오정녀 선교사 올림





최복희 권사 (한나 전도회 교육부 차장)

2022년도 한나 전도 회에서는 긴 코로나로 모이는 것도, 전도 집 회도 많은 제약이 있는 현 상태에서 성구 암송 을 통해 우리 내부에서 먼저 힘을 다져야 되겠 다는 마음으로 성구 암 송을 시작하게 되었습 니다.

매달 두 구절의 성구 암송을 시작으로 벌써 10구절의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매달 월례회가 있는 날 암송을 하시는 분에게 선물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은혜 롭게도 두 분 권사님들께서 푸짐한 상품 으로 섬겨주셔서 더 즐겁게 열심을 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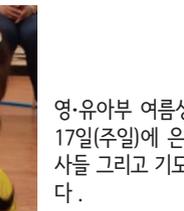
단독에 올라온 성구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안 보고도 외우기도 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나이를 감안하여 첫 월례회 때는 암송 말씀 중 빈칸 채워 써넣기로

했는데 열심히 집중해서 필기시험에 혼신을 다하시는 권사님들의 뒷모습이 마치 수능 시험장처럼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암송 구절을 세 번씩 써서 제출하기로 했는데 캐나다에 출타 중이신 권사님을 포함하여 한나 전도회 권사님 대부분이 제출을 하시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11월 마지막 월례회 때는 성구 암송 골든벨 퀴즈 대회를 열어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계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세상에서 입혀주는 갑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돌맹이가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듯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세상을 이길 물맷돌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떼다 보면 튼튼한 다리의 힘이 생기고 전도에 힘을 기를 수 있리라 믿습니다.



영·유아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7월 16일(토)-7월 17일(주일)에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교역자님과 교사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7월 16일(토)-7월 17일(주일)에 은혜롭게 열렸습니다. 교역자님과 교사들 그리고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정

- 그동안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로 수고하던 최낙기 선생이 사임하였다. 후임자 선정 때까지 임시로 최유현 집사(수요 2부 시온찬양대 지휘)가 겸임한다.
- 4교구 박찬호 성도 전주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임명, 박진솔 성도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임용 (박광서 집사·백경화 권사 장남, 자부)
- 식사 제공 : 5교구 백정순 권사, 김대훈 집사·유보영 집사 가정 (범사에 감사드리며)

사랑부에서 썬 옥수수 제공



성도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랑부 여름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사랑부 교사들이 8층 식당에서 썬 옥수수를 제공합니다.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_____ 이름: _____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7월25일	월	전 7-12		민 4-7	
7월26일	화	아 1-8		민 8-12	
7월27일	수	사 1		민 13-16	
7월28일	목	사 2-4		민 17-22	
7월29일	금	사 5-8		민 23-28	
7월30일	토	사 9-11		민 29-32	
7월31일	주일	사 12-17		민 33-36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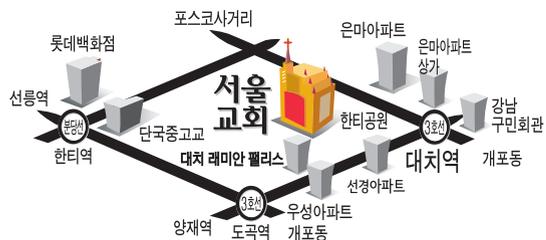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이 한주간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이웃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2. 29일(금)~31일(주일) 수련회를 통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청소년이 되게 하소서.
3. 코로나19의 재유행을 잘 방역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경제 위기로부터 지켜 주시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일 - 토)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